

통합 금암동 임시청사 '금암1동 주민센터'

금암1·2동 통합추진위원회 2차 회의서 결정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 중인 전주시 금암1·2동의 임시 통합청사가 현 금암1동 주민센터로 결정됐다.

전주시는 지난달 31일 전주시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주민대표와 시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암1·2동 통합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은 통합 신청사 개청시까지 사용할 임시청사 결정을 위해 각 동 주민센터의 주민 접근성과 민원처리건수, 연립별 인구 현황, 청사 여건 등을 고려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그 결과 대로변에 위치해 접근성이 높고, 연간 민원처리건수가 4만2078건

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금암1동 주민센터를 임시청사로 사용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앞서 시는 금암1·2동 통합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주민설명회와 7월 주민여론조사를 거쳐왔으며, 통합동 임시청사, 신청사부지 등 통합에 따른 제반사항을 결정하는 금암1·2동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5일 출범식을 가진 바 있다.

시는 오는 12월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조례개정안이 가결되면 내년 1~2월 통합 시행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3월까지 통폐합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최찬욱 금암1·2동 통합추진위원회



전주시는 지난달 31일 주민대표와 시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암1·2동 통합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논의에 감사드립니다"면서 "하나된 금암동의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 통합추진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청사 이동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실과 현장민원실 등 잔여 청사 활용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진행

18-26일 예산 문제·기업유치 경제활성화 대책 등 쟁점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각 부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이뤄질 예정이다.

감사는 첫날인 18일 복지환경국(전

주시복지재단, 동물원 포함), 경제산업국, 광역도시개발조성실 등을 시작으로 22일 농업기술센터,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까지 진행된다. 25일과 26일은 감사보고서 정리 및 작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포

함한 예산 문제, 전주시실공단 운영 상황, 기업유치 및 일자리창출 등 경제활성화 대책, 전주시민축구단 운영, 출연기관 통폐합 및 운영 상황 등 다양한 주제가 쟁점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행정감사를 앞두고 오는 14일까지 행정의 위법 부당한 행위와 예산낭비 사례, 개선사항 등에 대한 시민 제보를 접수한다.

제보된 내용은 검토 후 행정감사 대상에 반영하거나 기타 의정활동에 자료로 활용한다. 제보는 전주시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jonju.go.kr/>)나 우편·방문, 각 의원과 상임위원회 전화(운영위 230-3525, 행정위 3535, 복지환경위 3545, 문화경제위 3555, 도시건설위 3565)를 통해 접수하며, 제보자의 개인신상정보는 비밀을 원칙으로 한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뜻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행정감사가 이뤄지도록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덕진경찰서, 민·경 합동순찰

전주덕진경찰서(서장 김민병)는 지난달 31일 경찰서장, 범죄예방대응과·계장, 정보화장비계장, 기동순찰대 1개 팀 및 22개 지대 자율방범대 대원 등 100여 명과 여성안심귀갓길 15개소 등 범죄예방 강화구역에서 '민·경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전북대학교 구정문 앞에서 헬리콥터를 맞아 무분별한 유사경찰복제·장비의 사용 등을 막기 위해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범죄 발생 빅데이터 통계·분석자료를 토대로 취약 요인을 정밀진단하고, 협력단체와 함께 민·경 합동순찰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및 선제적 범죄예방 분위기 조성을 도모했다.

/김욱기 기자

월남전 참전 전주지역 전사자 합동 위령제 열려

조국 위해 희생 호국영령 넋기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1일 송천동 보훈누리공원에서 열린 '월남전 참전 전주지역 전사자 합동 위령제'에 참석해 고국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월남전에 참전했다 산화한 전주지역 전사자 46위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월남전참전 전주지회(회장 김귀만)가 주최한 이날 위령제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신경순 전북동부보훈지청장을 비롯한 보훈단체 회원과 유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이날 위령제는 △삼풀이 식전 공연 △헌화와 분향 △추념사 및 추모사 △추모 헌시 낭송 △파월부대가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추모사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1일 송천동 보훈누리공원에서 열린 '월남전 참전 전주지역 전사자 합동 위령제'에 참석해 고국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월남전에 참전했다 산화한 전주지역 전사자 46위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쳐서,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며 호

기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며 호국영령의 넋을 위로했다. /김욱기 기자

시민참여 집수리학교 교육생 모집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시민 대상 무료 교육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센터장 오은주)는 오는 5일까지 시민참여 집수리학교 일반과정 3회차 교육생을 공개 모집한다.

집수리학교는 간단한 실습 위주의 집수리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스스로 집을 고쳐 쓰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일반집수리과정 2회와 욕실집수리과정 1회, 주말특강과정 2회에 이어 마지막 교육 일정한 일반집수리과정 3회차만 남겨두고 있다.

교육은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총 4일 과정으로 하루 4시간 진행되며, 전주시에 거주지 등 등록된 시민이라면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누리집(www.jjhousewell.co.kr)에서 선착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시민참여 집수리학교 일반집수리과정에서는 집수리 경력이 풍부한 전문 강사진으로부터 매주



△집수리 공구 사용법 △핑크(문) 경첩 수리 △생활 전기 △생활 도배를 배울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81-0161)로 문의하면 된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는 지난 1일 어진박물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시의원, 박물관운영위원회 위원, 시민과 관광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시설 재개관을 널리 알리기 위한 재개관식을 가졌다.

전주시, 새단장 마친 '어진박물관' 재개관

전주한옥마을을 경기전에 위치한 어진박물관이 새단장을 마치고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한다.

전주시는 지난 1일 어진박물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시의원, 박물관운영위원회 위원, 시민과 관광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시설 재개관을 널리 알리기 위한 재개관식을 가졌다.

전주시립국악단의 축하공연으로 문을 연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와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커팅, 박물관 시설 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어진박물관은 지난 2010년 11월 6일 태조어진 봉안 600주년을 맞아 국내

유일의 태조어진(국보 317호)과 경기전, 조경묘 관련 유물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 개관했다.

시는 기존 박물관의 부족한 관람객 휴게시설 확충과 지하층에 모셔진 여섯 분의 어진을 지상층으로 옮기는 등 유물의 격에 걸맞은 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년여간 증축공사 및 내부 시설 정비 공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증축공사를 통해 태조어진실만 있던 지상층에 어진실과 휴게실, 수유실 등이 신설됐으며, 지하층에 위치했던 옛 어진실 공간은 교육·문화행사 등 대관전시기를 이루어지는 열린마당으로 탈바꿈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